저작권 기술산업 분석 보고서

방송 콘텐츠의 새로운 과제, 포맷 보호와 이용정보 관리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기술팀
문수연
2026. 11. 16.

보고서 요약

국내 방송 산업은 방송 사업 매출 감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TV(FAST) 등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방송 콘텐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완성된 프로그램뿐 아니라 **방송 포맷의 권리 보호와 이용정보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방송 콘텐츠의 주요 저작권 이슈로는 **방송 프로그램의 무단 재송출, 방송 포맷의 모방, 방송 음악의 이용 내역 확인 및 저작권료 정산 문제** 등이 있다. 특히 방송 포맷은 창작적 표현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방송 음악은 대사와 효과음이 혼합된 환경에서도 사용된 음악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영상 유사도 분석과 음악·대사 분리 기반 배경음악 식별** 등 관련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며, 방송 음악 자동 모니터링과 방송 포맷 등록·분석 서비스도 활용되고 있다. 국내외 대응 사례와 방송영상산업 진흥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기술적 식별과 권리정보 관리, 제도적 지원을 연계해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방송 산업 현황과 유통 환경의 변화

가. 국내 방송 산업 현황

국내 방송 산업은 방송 사업 매출과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국내 방송 사업 매출액은 **18조 6,4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으며,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방송 광고 매출액도 2조 1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 감소했다.

한편,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는 5조 7,5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방송 사업 매출과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프로그램 제작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매출과 제작비 지출 간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보였다.[1)]

| 국내 방송 산업 주요 지표(2025년)

구분	규모	전년 대비
방송 사업 매출액	18조 6,495억 원	▼ 0.8%
방송 광고 매출액	2조 134억 원	▼ 12.3%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5조 7,546억 원	▼ 0.1%

※ 출처: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방송 유통 채널의 다변화와 포맷 IP의 가치

방송 콘텐츠의 유통은 지상파·유료방송 중심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the-Top, 이하 OTT)와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TV(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이하 FAST)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FAST는 별도의 유료 구독 없이 광고 시청을 통해 방송 채널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미국의 FAST 채널 수는 **2020년 415개에서 2026년 1,572개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에서도 FAST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영국·독일·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소비자 7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7%**가 FAST를 매일 또는 한 주에 여러 번 시청한다고 답했다. 또한 **80.1%**는 FAST를 TV 시청의 주된 방법 또는 유료 스트리밍의 대안으로 인식했다.[2)]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년 방송사업매출, 3년 연속 감소”, 2026.06.19.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글로벌 FAST 시장의 성숙과 전환”, 2026.

국내 방송사도 글로벌 OTT와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 유통을 확대하고 있다. SBS와 넷플릭스는 2024년 12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2025년부터 SBS의 드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을 넷플릭스에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신작 드라마의 글로벌 동시 공개도 협력 내용에 포함됐다.[3)]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은 완성된 프로그램의 판매를 넘어, 방송 포맷(Format)[4)]의 수출과 현지 제작으로도 이루어진다. 국내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과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해외에서 현지판으로 제작되는 등[5)] 방송 콘텐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방송 포맷의 권리 입증과 계약에 따른 이용 범위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국내 방송 포맷의 해외 진출 사례





※ 출처: iMBC 공식 사이트, 티빙 공식 사이트

2. 방송 콘텐츠 저작권 주요 이슈

가. 불법 유통 방식의 변화

방송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거나 제공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이하 IPTV)을 악용한 불법 서비스는 방송 채널과 콘텐츠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유통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25 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에서는 불법 IPTV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유통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 등을 주요 감시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6)]

불법 유통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 개별 사이트에 대한 조치를 넘어, 유통 경로 파악과 권리자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3) Netflix, “넷플릭스-SBS,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K-콘텐츠 경쟁력 확대 ‘맞손’”, 2024.12.20.
4) 방송 포맷(Format): TV·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을 반복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본 구조와 진행 규칙 등의 요소
5) 한국콘텐츠진흥원, “세계를 겨누는 K-포맷, 그 변화의 물결”, 2020.08.
6) European Commission, “2025 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 2025.05.22.

나. 방송 포맷의 모방과 권리 보호 문제

방송 포맷은 프로그램의 기본 콘셉트와 진행 규칙, 출연자 구성, 단계별 전개 방식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다. 다만 프로그램의 개별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은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7년 SBS 예능 프로그램 "짝" 관련 판결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와 함께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드러나는 창작적 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7] 따라서 방송 포맷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소재나 아이디어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방송 포맷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기획안과 제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표현과 구성의 유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방송 이용 이력과 저작권료 정산 문제

방송 콘텐츠에는 영상뿐 아니라 배경음악과 삽입곡 등 다양한 저작물이 포함된다. 방송 음악의 이용 내역은 곡명과 사용 시간 등을 기록한 큐시트(Cue Sheet)를 통해 관리할 수 있으나, 방송 채널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서 모든 이용 내역을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의 음악 사용 내역 제출과 저작권료 정산 방식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에서 활용하는 자동 음악 모니터링 체계를 PP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됐으나,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과 정산 기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8]

이러한 논의는 **방송 음악의 실제 이용 내역을 정확하게 확보하는 기술**이 합리적인 저작권료 정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 대법원, "2014다49180 판결", 2017.11.09.
8) MTN, ""음악 저작권 사용료 정산 기준 없어"..분쟁 막을 정부 해법은?", 2026.03.10.

3. 방송 콘텐츠 이용정보 확인을 위한 기술

가. 영상 유사도 분석과 방송 포맷의 권리 입증

방송 포맷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안과 제작 자료를 기록하고, 유사한 콘텐츠가 등장했을 때 이를 비교·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영상 유사도 분석 기술**은 두 영상 사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영상 유사도 분석은 기준 영상과 비교 대상 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일치하거나 유사한 구간을 탐색하는 방식이다. Meta AI 연구진이 공개한 "The 2023 Video Similarity Dataset and Challenge"에서는 영상 복제 여부를 식별하고 복제된 구간을 찾아내는 과제를 제시했다.[9)]

다만 **영상의 복제 여부를 탐지하는 기술과 방송 포맷의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영상의 일부 장면이 유사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진행 규칙과 구성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까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상 유사도 분석은 유사한 표현을 탐색하고 전문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보조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감정제도 역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정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이다.[10)]

나. 대사와 혼합된 배경음악의 식별 정확도 개선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배경음악이 출연자의 대사나 효과음과 함께 재생되거나 일부 구간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음악과 다른 소리가 혼합된 환경에서는 원곡의 특징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어려워 음악 식별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오디오 핑거프린팅(Audio Fingerprinting)은 음원의 고유한 음향적 특징을 추출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음악과 비교하는 기술이다. 방송 배경음악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대사가 혼합된 신호에서 음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음악과 대사가 혼합된 방송 오디오에서 두 신호를 분리한 뒤 배경음악을 식별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특히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하 CNN) **기반 음원 분리 기술**을 적용하면 대사와 혼합된 음악 신호를 분리하여 배경음악 식별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방송 환경에서 음악 식별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다.[11)]

9) Ed Pizzi 외 8인, "The 2023 Video Similarity Dataset and Challenge", 2023.06.15.
1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감정", 2026.11.08. 조회
11) 김혜미 외 3인,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 모노채널 음악-대사 음원 분리 기술을 이용한 방송물 배경음악 식별", 2020.05.

4. 국내외 대응 사례

가. 국내: 방송 음악 모니터링 체계 운영

국내 지상파 방송에서는 **방송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Broadcasting Music Identifying System, 이하 **BROMIS**)[12]을 활용해 방송에 사용된 음악의 이용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방송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자동으로 식별해 실제 이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활용된다.[13]

한편, 방송 사용 음악에 대해 방송사 및 권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체계가 부재하여 사용료 정산 과정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해 왔다. 이에 2024년 4월부터 방송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관리비율[14]을 산출하게 되었다.[15]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실제 음악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저작권료 정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해외: FRAPA의 방송 포맷 보호 서비스

국제 방송 포맷 보호단체인 FRAPA(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는 방송 포맷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포맷 등록과 분석, 분쟁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RAPA의 포맷 등록 서비스는 창작자가 기획안 등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특정 시점에 해당 자료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포맷 분석 서비스는 두 방송 포맷의 구성 요소를 비교하고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16]

이러한 서비스는 방송 포맷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획·제작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검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 국내 정책: 방송 영상 콘텐츠 IP 확보와 저작권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9월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방송 영상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 신산업 육성, 글로벌 유통망 확대 등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17]

해당 계획은 방송 영상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방송 콘텐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Broadcasting Music Identifying System): 방송에 사용된 음악을 오디오 인식기술을 통해 식별하여 음악 사용 목록 생성, 방송사용료 정산·분배 자료로 활용
13) MTN, ""음악 저작권 사용료 정산 기준 없어"...분쟁 막을 정부 해법은?" 2026.03.10.
14) 관리비율: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신탁단체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방송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표
1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체부, 지상파 3사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 산정 중재 완료", 2024.09.30.
16) FRAPA, "Services & Resources", 2026.11.08. 조회
1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방송영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창작자(콘텐츠 크리에이터) 산업 2030년까지 30조 원 산업으로 키운다", 2026.09.10.

5. 시사점

방송 콘텐츠의 유통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저작권 보호·관리 기술의 활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방송 포맷의 권리 입증과 방송 음악의 이용 내역 확인은 콘텐츠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방송 포맷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획·제작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창작 과정의 근거를 확보하고, 유사성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연계해 분쟁 대응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방송 음악 자동 식별과 모니터링 기술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사와 배경음악을 분리하는 기술은 음악 식별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정확한 이용 내역 확보를 통해 저작권료 정산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방송 콘텐츠의 권리정보와 이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의 적법한 활용을 지원하고, 창작자와 권리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는 기술적 식별과 권리정보 관리, 제도적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방송 콘텐츠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창작·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참고자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년 방송사업매출, 3년 연속 감소”, 2026.06.19., https://www.km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68957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글로벌 FAST 시장의 성숙과 전환”, 2026., https://www.kca.kr/Media_Issue_Trend/vol75/report_03.html
- Netflix, “넷플릭스-SBS,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K-콘텐츠 경쟁력 확대 ‘맞손’”, 2024.12.20., https://about.netflix.com/ko/news/netflix-and-sbs-strategic-partnership-to-expand-k-content-competitiveness
- 한국콘텐츠진흥원, ″세계를 겨누는 K-포맷, 그 변화의 물결″, 2020.08., https://www.kocca.kr/trend/vol23/sub/s12.html
- European Commission, “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 2025.05.22., https://ec.europa.eu/transparency/documents-register/detail?ref=SWD(2025)132&lang=en
- 대법원, “2014다49180 판결”, 2017.11.0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4다49180
- MTN, ““음악 저작권 사용료 정산 기준 없어”...분쟁 막을 정부 해법은?”, 2026.03.10.,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31016410826064
- Ed Pizzi 외 8인, “The 2023 Video Similarity Dataset and Challenge”, 2023.06.15., https://arxiv.org/pdf/2306.09489.pdf
-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2026.11.08. 조회, https://www.copyright.or.kr/business/appraisal/index.do
- 김혜미 외 3인,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 모노채널 음악-대사 음원 분리 기술을 이용한 방송물 배경음악 식별”, 2020.0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44187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체부, 지상파 3사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 산정 중재 완료”, 2024.09.30.,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403
- FRAPA, “Services & Resources”, 2026.11.08. 조회, https://frapa.org/our-services/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방송영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창작자(콘텐츠 크리에이터) 산업 2030년까지 30조 원 산업으로 키운다”, 2026.09.10.,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707